도의원 리스

국민의당 배병욱 익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마쳐

배병욱 익산시장 예비후보(이하 배 후보)(사진)는 지난 19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국민의당 합류와 오는 4.13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발표하자 같은 날 국민의당으로 익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끌었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전 실행위원 이기도 했었던 배 후보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세력화로 정치의 판을 바꿔 양당 기득권 담합체제를 깨고 경제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정치 구현을 위한 안철수, 정동영 두 정치지도자의 결단을 격하게 응원한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주)아이니-원광새마을금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후원

㈜아이니(대표이사 김미경)와 원광새마을금고(이사장 조세련)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후원해 지역을 훈훈하게 했다. 지난 19일 ㈜아이니는 후원금 1천만원과 함께 유아 내의복 9,380세트(1억원 상당), 원광새마을금고(이사장 조세련)는 1천만원을 익산시청을 방문해 각각 기탁했다.

익산의 향토 섬유기업인 ㈜아이니는 작년 매출액이 102억을 달성한 우수한 중소기업다이다.

원광새마을금고(이사장 조세련)는 희망나눔바자회 통해 곶감, 두부, 만두 등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후원해 행사를 더욱 의미 있게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장 취임식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지난 18일 오후 7시경 생활안전협의회장 이용규 등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안전협의회장 이·취임식 및 감사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수 회장의 이임과 이용규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진행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안전협의회원 중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한 '베스트 회원'을 선발하여 익산경찰서장 감사장을 김동수 회장과 김명근 총무에게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월명공원 조림사업 추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면적 절반 차지…시 긴급 예산 8억 투입

군산의 상징 월명공원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해 조만간 조림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군산시 전체 산림 피해면적은 763ha이며, 이 가운데 월명공원은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127ha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명공원은 피해 면적에 대한 벌채가 이뤄져 사실상 소나무를 찾아보기 어려운 민둥산으로 남아있어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에 시는 긴급 예산 8억원을 투입해 월명공원 등의 조기녹화에 나서기로 하고 전문기관인 산림과학원과 조림수종 협의에 나섰다.

시는 월명공원의 신속한 조림 녹화를 위해 군산지역 각 업체들의 참여를 협의중인 가운데 OCI를 비롯해 페이퍼코리아, 군산산림조합, 대운산업개발 등 6개 업체가 일정 면적의 조림사업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림 수종은 편백, 목백합, 산수유, 단풍나무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조림지역은 50~60㎝ 높이, 주요 경관지역과 등산로 산책로 주변은 그늘 제공을 위해 큰나무 속성수 식재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림사업을 통해 공원 전체의 수종갱신을 모색하거나 수종별 군락지 등을 조성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서둘러 조림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식재된 수목이 자라 수목이 울창했던 기존 공원의 쾌적함을 되찾기 까지는 최소 10여년 이상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일단 조림 녹화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재선충 피해를 계기로 월명공원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명품 숲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민 71% 사드배치 반대 압도적

후보지 거론 4곳 지자체중 비율 월등히 높아

군산 시민의 71%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오늘'과 '(주)에스티아이'에서는 지난 16일과 17일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군산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강원도 원주시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 조사 결과 군산시민들은 응답자 가운데 사드배치 '찬성' 25.1%, '반대' 71.5%로 압도했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자체의 사드 배치 찬성률은 평택 49.9%, 대구 48.9%, 원주 44.8%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평택 43%, 대구43.6%, 원주 48.4%를 보였다.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 된 4곳 지자체 가운데 군산지역의 반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드 배치지역을 결정할 때 지역 주민의 동의 전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군산시민의 76.5%는 '전제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대구 47.1%, 평택 51.4%, 원주52.4%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드배치 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군산지역 응답자의 36.8%는 군사분쟁 공격 표적, 34.1%는 레이더전자파유해성, 16.1%는 부동산 하락 등 지역경제 악영향을 꼽았다.

특히, 군산지역 응답자의 81%는 이번 총선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후보 등의 의견이 다를 경우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오늘이 조사 전문기관인 (주)에스티아이와 공동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사드 후보지로 거론되는 4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됐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소방서, 올해 바뀌는 소방법령 설명 자료 발표

군산소방서(서장 박진선)는 2016년도부터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16년부터 변화되는 주요 소방법령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소방안전분야에 대한 규제와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이유는 세월호 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이 사회 안전망에 불안감을 갖게 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모두의 공익과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모두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역할을 키우기 위함이다. 변화되는 주요 소방법령은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최초1회→ 1회/2년) ▲다중이용업 안전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부실감리처벌기준 강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반영 ▲불법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의무 폐지 ▲119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 ▲의료기관장의 감염병 환자 통보의무가 신설됐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 정원대보름 연날리기대회 성황

익산에서 처음으로 열린 〈2016 정월대보름 연날리기 대회〉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지난 20일 익산시 용안생태습지 학습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1,500여 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특히 봄방학을 맞아 많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보였다.

한해의 희망과 무탈을 기원하는 의미의 연 높이 날리기 대회는 사전접수자 400여명을 포함해 500여 명이 참가해 대회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여러 참가자들이 기량을 뽐내며 실력을 겨루는 가운데 수많은 연이 하늘을 수놓으며 장관을 연출했다.

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은 연날리기 체험, 민속놀이 체험, 부럼깨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연 퍼포먼스와 연 전시, 그리고 행사장에 떠 있는 익산을 상징하는 미륵사지와 보석 모양의 대형 연에 방문객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군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이현수(34세)씨는 "요즘은 아이들이 연 날리는 모습을 보기 힘든데 직접 연을 날려볼 수 있어 일부러 행사장을 찾았다. 아이들이 연날리기를 재밌어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대회 관계자는 "익산 용안생태습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정월대보름 연날리기 대회가 지역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올해가 첫 개최였던 만큼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역사박물관 '진포에서 만난 작은미술전' 개막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도립미술관 초대전으로 '진포에서 만난 작은 미술전'이 오는 5월 1일까지 근대미술관(구 18은행 군산지점)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군산의 바다와 평야, 삶을 주제로 하반영, 문복철, 권영술, 손아유, 윤철규 등 작가 16명의 작품 30여점을 선보이게 된다.

미술전에서는 지난해 작고한 군산출신 하반영 작가와 군산에서 일평생을 작가이자 교육자로 활동하며 한지회화를 세계에 알린 문복철 화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인상주의풍의 향토색 짙은 작품세계를 추구하는 권영술, 재일교포 2세로 전후(戰後) 모노하의 형성 속에 독창성을 보여준 손아유 등 30여 작품들을 통해 군산의 서정적이면서도 담백한 자연과 삶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은 물론 군산시민 모두가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군산이 가진 역사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3년 6월에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분관으로 개관한 군산근대미술관은 전북도립미술관과의 협력(MOU) 협정에 따라 근대기에 활동한 작고화가의 작품을 주제로 한 '시간의 흔적展', 근대유명작가와 중국, 일본 등의 대표 작가들의 서예작품을 주제로 한 '넉의 숨결展', 신태균 사진작가의 작품을 주제로 한 '필름속의 추억展'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